

“광주·전남 인공지능 특화사업 발굴을”

광전연, AI 분야 부처별 동향·시사점 분석 창업 생태계 조성·성과 극대화 방안 모색

인공지능(AI), 메타버스, 빅데이터 등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의 필요성이 커지면서 광주·전남 지역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AI 특화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25일 광주전남 정책Brief ‘2022년 부처별 인공지능 분야 동향과 시사점’ 발간을 통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의 인공지능 분

야 사업 계획을 분석하고 광주·전남 지역 여건과 관련성이 높은 사업 마련을 제안했다.

올해 부처별 추진계획으로는 ▲디지털·AI 인력 양성(고용노동부) ▲IoT·AI 기반 스마트 돌봄 시스템 확대(여성가족부) ▲AI가전산업 육성 플랫폼 구축(산업통상자원부) ▲AI 어선안전건조 플랫폼 개발(해양수산부) 등이 있다.

정부의 인공지능 관련 사업은 광주인공

지능 국가거점화, AI반도체, AI가전, 정밀농업, 스마트항만, 스마트양식 등 광주·전남 지역과 밀접한 사업을 포함한다.

이에 더해 인공지능 기술은 문화, 교육, 교통, 산업 등 전통적 응용 분야뿐만 아니라 국방, 외교, 법무, 안전 등 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고 있다.

이에 광주전남연구원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는 부처별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가AI데이터센터 활용, 창업생태

계 조성, 기업 유치 성과 극대화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현장 수요중심 인공지능 적용과 전 산업으로 본격 확산을 통한 가시적 성과 창출이 필요하다고 시사했다.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는 광주·전남 AI 활성화를 위한 10대 추진과제로 ▲AI 헬스케어 로봇 개발 거점 조성 ▲광산업과 연계한 AI 반도체 산업 기반 구축 ▲광양항 스마트 복합물류 AI항만 실현 ▲메타버스·블록체인 연계 AI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AI 기반 광주전남 일상 안전 모니터링 지도 구축 ▲국가AI알고리즘개발센터 설립 ▲AI팩토리 확대 ▲주인 디지털 기반 활동 참여 촉진을 위한 AI 마일리지 제도 도입 ▲

인공지능 선도사업 및 특화융합 과제 발굴 ▲앵커기업 유치를 위한 지자체 공동 노력을 제시했다.

한경록 인공지능지원연구센터장은 “인공지능과 에너지·헬스케어·농식품·해양수산 등 지역 강점 연계, 인공지능을 활용한 초광역 협력사업 구상, 메타버스 등 신기술과의 융합을 바탕으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올해 새 정부 및 민선8기 출범을 맞아 지역 내 인공지능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발굴한 사업의 국정과제화 및 예산 확보에 집중해 지역 발전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길용현 기자

‘설·대보름’ 문화행사 연다

시, 국악상설공연 등 비대면 콘텐츠 제공

광주시는 설 연휴와 대보름 주간(2월 14일~15일)을 맞아 기관과 자치구, 마을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총 10여 개의 문화행사가 열린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설 맞이 문화행사는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와 연휴 기간 이동을 최소화해 광주시 관내에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행사를 중심으로 마련됐다.

먼저, 광주문화예술회관은 국악상설공연 ‘설에 설레임’(2월 1일), ‘설 맞이 공연’(2월 2일)을 펼친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은 2월 1일 설에 세시문화 체험마당을 운영한다. 전통민속놀이 체험과 함께 놀이 키트 나눔, 입춘축 나눔 행사도 열린다.

광주문화재단은 2월 12일 전통문화관 개관 10주년을 맞아 ‘무등풍류연

시민과 함께하는 전통문화관 개관 10년, 시민동락’ 행사를 선보인다. 전통문화관 10년 사진 전시회부터 각종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을 선보인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설맞이 우리문화 한마당 ‘박물관에 왔어~흥’ 전시·체험 행사가 열린다. 오징어게임을 모티브로 한 메타버스 토크쇼 ‘광박이 미션’과 온라인 마술쇼 ‘사라지는 레스토랑’은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정월대보름 맞이 행사로는 한 해 동안 마을의 화합과 안녕을 기원하는 당산제가 풍암동과 유덕동에서 2월 14일, 15일에 각각 열릴 예정이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8일부터 2월 6일까지 ‘집콕 문화생활 설 특별전’을 통해 다양한 비대면 무료 콘텐츠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선우 기자

진보당 광주시당 지방의원 후보 선출

진보당 광주시당이 오는 6월 지방선거에 출마할 지방의원 후보 선출을 마쳤다.

25일 진보당 광주시당에 따르면, 최근 당원투표를 통해 광주시의회 지역구 후보 3명·비례대표 후보 2명과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4명을 결정했다.

광주시의회 지역구별 후보로는 서구2선거구에 강승철씨(전 민주노동당 사무총장), 서구4선거구에 김해정씨(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 광산1지회장), 광산구2선거구에 김승철씨(전 금속노동조합 광주 전남지부 지부장)를 각각 선출했다.

광주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1번은 김미화씨(전남대학교병원 간호사), 2번은 김선옥씨(건설노조 광주전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가 각각 배정됐다.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서구 기춘희씨(㈜씨쏘뮤지컬컴퍼니 대표), 남구 박미영씨(전 전국보육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장), 북구 정승희씨(광주여성회 부대표), 광산구 김양지씨(진보당 광주여성-엄마당 준비위원장)가 각각 뽑혔다. /오선우 기자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

25일 오후 광주시 북구 선별진료소 모니터에 오미크론 관련 새 방역체계에 따른 코로나19 안내 영상이 송출되고 있다. 오미크론이 우세한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에서는 26일부터 60세 이상 고령층과 밀접접촉자 등 고위험군만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시행하고, 그 외의 사람들은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나 위양성 판정을 받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태규 기자

강동완 전 조선훈 총장, 시교육감 출마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 등 6대 디자인 구축”

강동완 전 조선훈 총장(사진)은 25일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출마기자회견을 갖고 “광주교육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기분을 증시하는 학생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실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강 전 총장은 “광주교육을 융합적 사고를 위한 뇌 인지교육과 문제해결형 교육으로 대전환하는 것이 광주가 안고 있는 하향평준화를 극복하고 세계적인 실력 광주를 만들어가는 길이다”고 밝혔다.

강 전 총장은 이를 위해 6대 디자인 교육시스템과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6대 디자인은 ▲디지털 문해력으로 꿈을 이루는 메타버스 교육 생태계 구축 ▲공감으로 상상하는 환경 구축 ▲삶의 이야기를 나누고 콘텐츠화할 수 있는 기초학력 문해력 강화 ▲광주의 역사를 통찰해 혁신 추진 ▲녹색 공간 확충 등이다.

강 전 총장은 2019년 조선훈 총장 재임



당시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서 저조한 평가를 받자 조선훈 이사사회부터 책임을 떠맡는 등 학내에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대해 강 전 총장은 “당시 학내 안정을 위해 이사회의 해임을 받아들였다”며 “앞으로 교육감 선거에서 저에 대한 외곽 없이 34년간의 교직 생활 중 경험하고 성취한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김현철 시민권익연구원장, 여수시장 도전

김현철 여수시민권익연구원장(사진)이 25일 여수시청에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여수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원장은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과 천혜의 자연자원 등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며 “그런데도 시민이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불행행정과 소극적인 정책으로 광주 여건이 악화되면서 성장동력이 상실되고 인구가 감소하는 쇠퇴도시로 전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시를 획기적으로 바꾸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시장에 돌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정책 전문가가 필요하다”면서 “과거와 이천 부시장, 경기도 정책기획관, 행정안전부의 경험으로 정책 기획능력과 종합 행정 능력을 갖춘 지방 행정전문가”라고 자



신을 소개했다.

김 원장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당선되면 시장 직속의 갈등조정위원회 설치로 현안을 해결하고 의회와 협력체제도 강화하는 시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남취재본부=곽재영 기자

전동호 전 전남도 국장, 영암군수 출마

전동호 전 전남도 국장(사진)이 오는 6월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영암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전 전 국장은 25일 오전 영암을 기차빌리지 교육관에서 영암의 미래 청사진을 담은 “2030년 영암 비전보고회”를 갖고 군수 출마를 공식화했다.

그는 보고회에서 “이제 새로운 영암의 시간을 준비할 차례”라면서 “행복한 북



제시해 왔다.

전 전 국장은 현재 대한민국대선 선거대책위원회 총괄특별단 정치혁신 특별, 국무총리 자문위원, 이재명 선대위 균형발전위원회 전남공동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영암=최복섭 기자

오병석 전 농식품부 차관보, 강진군수 출마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사진)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강진군수 출마를 선언했다.

오 차관보는 “나고 자란 강진의 어려움을 더 외면할 수 없었다”며 “소멸 고위험지역인 강진을 살기 좋고 인심 좋은, 하지만 강한 강진군으로 만드는 데 노력하겠다”고



재직 중 1989년 제25회 기술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립종자원장,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식품산업정책실장, 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강진=한태성 기자

전남매일 | 장애인 학대 신고 캠페인

장애인학대 지금 신고하세요!

신고전화 1644-8295

장애인학대란?

- 장애인을 때릴 때
- 장애인이 싫어하는데 억지로 몸을 만질 때 (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 장애인에게 욕을 하거나 무서운 말을 하며 괴롭힐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보호하지 않고 버렸을 때
- 장애인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이 식사를 안 주거나, 치료를 제대로 하지 않을 때
- 돈을 빼앗거나,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을 때

장애인학대 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1 언제 신고하나요?
신고 내용을 확인합니다.
- 2 장애인학대에 해당하는 일을 겪었을 때 장애인학대를 발견하였을 때
조사를 합니다.
- 3 어떻게 신고하나요?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의료 심리 거주 사법 복지
- 4 어떤 내용을 신고해야 하나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말합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